

# 선두 질주 KIA, 집중력·선발야구의 힘



이상한 기록의 '1위 타이거즈'다. 얼마 전 KIA 김기태 감독은 "기록으로 1위라는 게 이상하다면서요?"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김 감독의 이야기대로 흔히 언급되는 주요 기록은 KIA의 '1위'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30일까지 KIA의 팀타율은 0.282로 전체 5위다. 1위는 0.294의 넥센. 장타율과 출루율을 합친 OPS를 살펴봐도 KIA는 0.774로 5위다. 홈런도 42개로 5위다.

팀 평균자책점 역시 4.34로 5위다. 팀 평균자책점 1위는 LG(3.40)다. 불펜 평균자책점은 6.42로 최하위 삼성(6.51)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피안타율은 0.298로 가장 높고, 30개의 폭투를 기록해 이 부문 2위다.

투수들의 책임으로 기록된 실점은 223점으로 최소 실점 5위, 안타와 볼넷으로 한 이닝에 1.47명의 주자를 내보내면서 이닝당 출루 허용률 역시 5위다.

팀 타율·OPS·홈런·팀 평균자책점 전체 5위

불펜 평균자책점 9위·피안타율 1위·폭투율 2위

그럼에도...

타점·희생플라이 1위·볼넷 2위...삼진 두번째로 적어

막강 선발·수비·득점권 집중력...선수들 자신감 넘쳐

크게 보이는 기록으로는 1위와 거리가 먼 KIA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효율적이면서 집중력 있는 타격과 선발 야구의 힘이 보인다.

팀타율 5위의 타자들이 만들어낸 타점은 272개로 전체 1위다. 득점권 타율(0.296)이 팀타율(0.282)을 넘어서는 등 찬스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병살타도 한화와 함께 가장 적은 36개를 기록하고 있다.

점수를 만들어내는 '희생타'의 질도 좋아졌다. 올 시즌 기록된 KIA의 희생번트는 19개로 전체 7위지만 희생플라이는 가장 많은 22개를 만들었다. 희생번트는 주로 진루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희생플라이는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

다. 올 시즌 KIA는 득점권에서 착실하게 안타를 만들어 주자를 이송시키고 또 희생플라이까지 더해 홈을 파고들게 하는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66개의 희생번트, 45개의 희생플라이가 기록됐었다.

타자들의 침착한 눈야구도 눈에 띈다. KIA 타자들은 두산(197개)에 이어 가장 많은 178개의 볼넷을 골라내고 있다. 반면 삼진은 323개로 314개의 두산에 이어 최소 2위다.

막강 선발진 'K4'의 힘도 위력적이다. 헥터(ERA 2.07·7승), 양현종(3.64·7승), 팻틴(3.09·4승), 임기영(2.07·6승)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안정된 피칭으로 기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발로서 많은 이닝을 책임지면서 뒷문 약한 KIA의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올 시즌 KIA 선발진은 35차례 퀄리티 스타트(6이닝 3실점 이하)를 끊으면서 2위 LG(25개)에 크게 앞선 1위다.

'K4'가 10경기에 출격해 기록한 이닝은 헥터 72.1이닝, 양현종과 임기영이 64.1이닝, 팻틴 64이닝에 이른다.

여기에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는 수비도 있다. KIA는 김선빈과 안치홍 '키스톤 콤비'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64개의 더블플레이를 합작했다. 26.5%로 지난해 최하위였던 도루 저지율은 새 안방마님 김민식의 활약 속에 44%(2위)로 경중 뛰어올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1위 KIA의 힘. 여기에 KIA는 지난 30일 '난작' NC와의 경기에서 리그 최고의 마무리 임창민(16세이브)에게 시즌 첫 블론 세이브를 안기며 3-7의 승부를 9-7로 뒤집었다.

연장 11회 끝내기 만루포에 이은 화려한 역전극 등 기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선수들의 자신감과 포기하지 않는 덕아웃 분위기도 KIA 1위의 힘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이틀 연속 홈런...시즌 7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7호 홈런을 포함해 세 차례나 출루하는 맹활약으로 팀 승리를 도왔다.

추신수는 지난 31일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2타수 1안타(1홈런) 2볼넷 2타점 2득점 1삼진으로 활약했다.

첫 타석부터 초구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의 시즌 7호 홈런이자 시즌 2호 리드오프 홈런이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탬파베이 선발투수 맷 안드리스의 조구인 시속 145km 포심 패스트볼을 강타, 담장 한가운대를 넘기는 대형 홈런을 날렸다. 전날 경기에서도 솔로 홈런을 쳤던 추신수는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리며 13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텍사스는 다음 타자 엘비스 앤드루스의 2루타와 노마 마자라의 중전 안타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2-0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3회초 4점을 잃고 역전당했다. 추신수는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후진 웨이를 상대로 볼넷을 골라 나갔다. 그러나 1사 후 마자라의 2루수 땅볼에 포스아웃 당했다. 2-5로 더 밀린 5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7회말에는 2사 1루에서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어진 2사 1·2루에서 앤드루스가 좌중월 3점포를 날려 5-5 동점이 됐다. 추신수는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텍사스는 8회말 1사 만루에서 제러드 호잉의 적시타로 6-5로 달아났다. 이어진 1사 만루에서는 추신수가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냈다.



후속 타자 앤드루스는 2사 2·3루에서 2타점 2루타를 작렬, 점수를 9-5로 벌렸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오후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패한 한국 백승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용의 눈물' 꽃으로 만개하리

(신태용)

U-20 월드컵 신태용, 포르투갈에 1-3 패...8강행 좌절

이승우·백승호 등 올림픽·월드컵 신화 창조 나설 핵심

'홍명보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축구의 '황금세대' 재건을 꿈꾼다.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거침없던 여정을 16강에서 마감한 젊은 태극전사들은 차세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중심으로 기대를 모은다.

'바르사 듀오' 이승우(19·바르셀로나 후베닐A)와 백승호(20·바르셀로나B) 등 U-20 대표팀 선수들은 30일 포르투갈과 16강전 1-3 패배 후 16강 탈락이 확정되자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쏟았다. 리틀 태극전사들의 도전은 16강에서 멈췄지만, 이들은 앞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새로운 신화 창조에 나설 핵심 자원들이다.

'신태용의 아이들'이 한국 축구의 '황금세대'로 도전할 무대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들은 2009년 이집트 U-20 월드컵 때 8강에 올랐던 선수들이 2012년 런던 올림

픽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것과 비슷한 길을 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 U-20 월드컵 멤버였던 구자철과 김보경, 김영권, 홍정호, 윤석영, 이범영, 오재석 등은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동메달을 따는데 앞장섰다. 또 이들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의 주축이었다. 당시 한국은 조별리그 탈락 부진을 겪었지만 구자철 등은 여전히 축구대표팀에서 중심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승우와 백승호 등 현재 신태용주축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 성장한다면 3~5년 후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한국을 빛낼 대표팀 요원으로 될 수 있다.

'신태용의 아이들'의 향후 과제는 성인 대표팀에 뽑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A대표팀 사령탑인 율리 슈틸리케 감독

은 최근 이승우와 백승호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프로 1군 무대에서 자신의 경기력을 입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는 나이상 더는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뛸 수 없기 때문에 오는 9월 이전에 프로 계약을 해야 한다.

이승우는 백승호가 뛰고 있는 바르셀로나B로 승격하거나 주전으로 많이 뛸 수 있는 새로운 프로 팀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호 역시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들 외에 한찬희(전남 드래곤즈), 임민혁(FC 서울) 등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선발들과의 치열한 주전경쟁을 뚫어야 하고, 조영욱(고려대), 하승운(연세대) 등은 대학 졸업 후 프로 무대에 데뷔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U-20 월드컵에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대표팀을 해산하는 '신태용의 아이들'이 향후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정현, 메이저 첫 3회전 진출 꿈

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강호 샘 퀘리 제압...2회전 상대도 해볼만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67위·삼성증권 후원)이 메이저 대회 3회전 진출 가능성도 부풀렸다.

정현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600만 유로·약 452억원) 남자단식 1회전 샘 퀘리(28위·미국)와 경기에서 3-1(6-4 3-6 6-3 6-3)로 이겼다.

2015년 이 대회 예선 1회전, 지난해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하며 프랑스오픈에서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한 정현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승리를 챙기며 본선 64강에 진출했다.

정현이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를 물리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5년 US오픈에서 당시 69위였던 정현은 95위 제임스 덕위스(호주)를 3-0(6-3 6-1 6-2)으로 제압했고, 올해 호주오픈에서는 세계 랭킹 105위로 출전해 79위였던 렌조 올리보(아르헨티나)를 3-0(6-2 6-3 6-2)으로 꺾었다.

이번 대회에서 정현이 물리친 퀘리는 이전 덕위스나 올리보와는 차원이 다른 선수

들이다.

2011년 세계 랭킹 17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에서 9번이나 우승한 강호다. 역대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만난 상대 가운데 경력이 화려한 선수를 처음 꺾은 정현은 메이저 대회 첫 3회전 진출 가능성도 부풀렸다.

정현의 다음 상대는 테니스 이스토민(80위·우즈베키스탄)이다.

정현은 이스토민과 지금까지 두 번 만나 1승씩 나눠 가졌다. 2015년 데이비스컵에서 처음 대결해 2세트 경기 도중 정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권했고, 지난날 말 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에서는 정현이 2-0(6-4 6-4)으로 승리했다.

2008년 이형택 이후 9년 만에 한국 선수로 프랑스오픈 남자단식 2회전에 오른 정현은 2회전에서 비교적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면서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정현은 뉴욕타임스, 유로스포츠 등 외국 주요 매체로부터 '주목할 선수'로 거론됐다. /연합뉴스

10월 안방 개최 PGA 투어

김시우 등 한국인 20명 출전

오는 10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에 최대 20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지난 31일 스폰서를 맡은 'CJ컵@나인브릿지' 대회의 출전 자격을 발표했다.

출전 선수 78명 중 60명은 페덱스컵 포인트로 결정된다. 페덱스컵 랭킹 22위인 김시우를 비롯해 강성훈과 안병훈, 노승열의 자격 출전이 유력하다. 나머지 18명의 출전권은 한국프로골프(KPGA)와 아시아 투어 등에 주어진다.

우선 6월 개최되는 KPGA 선수권대회의 우승자 1명과, KPGA 코리안 투어의 신규대회인 제네시스 챔피언십의 우승자 1명,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3명에게도 출전권이 부여된다. 아시아 투어 상금 순위 1위와 한국인 중 상금 순위 1위에게 출전권이 부여된다. 세계골프랭킹 기준 한국인 상위 3명도 대회 초청장을 받게 된다.

CJ가 초청하는 선수는 8명으로 PGA 투어의 레전드급 선수나 한국 선수를 초청하되, 국내 아마추어 유망주도 1명 초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